

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6. 1. 20.(화) 13:00

봄철 산불,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

- 산림청, 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운영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선제적 가동
- 행정안전부, 대책지원본부 가동으로 산불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지원

- 산림청(청장 김인호)과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, 2026년 봄철 산불을 대비한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.
-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5월 15일까지 운영하며,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조기 가동한다.
- 특히,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설치하여 행정안전부, 국방부, 소방청, 경찰청 등 산불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산불 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.
- 이에 맞춰, 행정안전부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, 산불 상황관리,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주민대피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지원한다.
-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한 견고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“산불은 어느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”라며, “양 기관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,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림청 산불방지과	책임자	과 장	금시훈 (042-481-42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철 (042-481-4255)
	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안길주 (044-205-61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원일 (044-205-6183)

